해남, 850억 투입 '살기좋은 농어촌수도' 만든다

면단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박차… 균형있는 지역 발전 핵심사업 추진

해남군이 '농어촌수도 해남'을 목표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경관 조성을 통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군은 읍면간 생활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850여억원에 이르는 관련 사업들을 총괄해 누수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농촌협약으로 추진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은 2027년까지 총 432억원을 투입해 7개면에 생활 SOC 등을 조성한다.

삼산,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면 등 6개면은 면 소재지에 복합생활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당 60억원을 투입하며 북평면은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대상 읍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7개면 이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산이면에 세대어울림커뮤니티센터, 마산면에 힐링센터를 건립해 면민들의 생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군 관내 총 9개소를 대상으로, 마을당 20억원을 투입해 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주택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1년 지구로는 삼산 산림·문내 동리, 2022년지구 옥천 용동, 2023년 지구 북평 신홍·계곡 둔주, 2024년 지구 송지 마봉·북평 영전, 2025년 지구 해남읍 복평·황산 교동이 대상지이다. 2021~2023년 지구는 토목, 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4~2025년 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마을당 5억원을 투입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2023년지구 현산 황산, 황산 송호, 2024년지구 화산 연곡·무학, 송지 엄남, 옥천 백호, 황산 우항, 산이 금호, 2025년지구 해남읍 옥동, 현산 봉동, 송지 중리, 옥천 청룡, 산이 측두, 문내 외암·화원 별암 등 총 1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2023~2024년 지구는 설계 완료 후 각각 공정 단계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지구는 주민협의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총 3개소로 5개년동안 추진된다. 2022년 현산 시등지구 50억원, 2023년 산이 금호지구 127억원, 2024년 송지 어란지구 60억원 등 총 337억원을 투입해 폐공장, 빈집 등 위해시설을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주민편의시설 등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환경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꼽히는 빈집 활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올해 빈집철거 76동, 화장실개량 30동의 사업이 추진되며, 행안부형 빈집정비 사업으로 36동의 빈집을 철거 후 쉼터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은 해남형 12개소, 전남형 2개소 등 총 14개소를 개보수해 전입 희망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현산, 북평 등 2개소에 개소당 4억5,000만원, 해남형 마을유휴공간 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총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농어촌수도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농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 개원

96억 들여 준공… 돌봄 기반시설 확대

진도군은 지난 17일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준공된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설진석 시설장,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관계자 등 약 100명의 내빈이 참석했고,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기반 시설 확대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2,890.25㎡ 규모로 신축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진도군공립노인요양원 개원으로 우리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을 잘 이용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운영

광양용강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2025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2025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소외계층 지원시설과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271개(2023. 12. 기준) 공공도서관 중 120개 관(어린이 110, 청소년 10)이 선정됐으며, 광양시에서는 광양희망도서관(어린이 대상)과 광양용강도서관(청소년 대상)이 선정됐다.

광양용강도서관은 광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생태 전문 독서강사와 도서관 사서가 함께 참여하며,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선정한 도서 함께 읽기, 도서관 활용 교육, 독서편견 바로잡기, 작가와의 만남,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참가자에게는 관련 도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목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미식관광도시 부문 쾌거

2025-2026 관광 100선·K-로컬 미식여행 33선 선정 시너지효과 극대화

목포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미식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미식관광도시 부문에서는 총 8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로 올라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목포시는 최우수점수를 획득해 새롭게 신설된 해당 부문 최초의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2026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그리고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 선정되며 미식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목포와 남도의 풍성한 음식문화 및 미식 콘텐츠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미식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김재욱 기자

대학생 15명의 아이디어로 영암을 혁신한다

영암군-경희대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가동

대학생 15명이 26일간 영암군에 머물며 지역 혁신 아이디어를 내놓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공동 추진하는 '2025 사회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위해 베이스캠프인 군서면 구림한옥스테이 구림재에 둥지를 튼 것이다.

이들은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디지털콘텐츠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미디어학과, 외식경영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학생들은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등 분야에서 로컬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청소년 멘토링 활동도 나서는 등 지역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14일 영암에 도착해 지역 곳곳을 살핀 대학생들은, 16일 구림재에서 열린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영암군 공직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회혁신스쿨 프로젝트의 개요·목적을 공유하고, 협력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영암군이 대학생들에게 제안한 로컬브랜딩 주제는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농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지원 △도시청년이 만나는 유기농 생태 체험 프로젝트 등 5가지다.

대학생들은 우대식 교수와 함께 오는 5/10일까지 통합사회복지관 조리실, 영암 매일시장 특화상점가 공유테이블 등 영암군 곳곳을 돌며 5가지 제안에 대한 혁신 해법을 제시한다. /영암=김형두 기자

함평군-전남도-㈜미삭, 5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가전제품·자동차 금형 제조회사 공장 신축

함평군이 관내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미삭(대표 오경민)과 총 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함평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이상익 함평군수, 오경민 ㈜미삭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미삭은 함평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에 가전제품 및 자동차 금형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미삭은 2019년 설립 이후 꾸준한 영업 활동으로 일본과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공장 신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규모에 따른 물량 수주 약속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생산 품목은 국내 매출 기준으로 가전제품 부품이 약 80%, 자동차 브라켓 금형이 20%를 차지하며, 수출용 제품은 전량 자동차 금형으로 계획되어 있다.

함평군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9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지역 인재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미삭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지대만 기자

신안 흑산도 '동백의 섬' 선포식

"전국 단일섬 최대 30만 평 규모 동백 자생"

신안군 흑산면은 지난 16일 상라산 정상에서 '동백의 섬' 선포식을 했다.

이번 선포식은 흑산도 동백나무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흑산도 동백은 30만 평의 면적에 45만 그루가 자생하며, 겨울에서 봄까지 1억 5천만 송이의 동백꽃 봉오리가 피어올라 장관을 이룬다.

신안군 1섬 1정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동백의 섬' 조성 사업은 동백나무 군락이 이루는 자연경관의 보존과 함께 이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동백의 섬' 만들기 추진 위원장(위원장 김장혁)은 "흑산도를 한 송이의 동백꽃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조성하겠다"라며 "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흑산도 주민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라고 주민들 모두가 함께해 주길 희망했다. /신안=정경욱 기자

순천체력증진교실 참가자 23~25일 모집

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순천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순천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은 시민들을 위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요가 및 스트레칭과 더불어 전문가를 통한 체력 측정을 병행 운영한다.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3회(월·수·금) 오전 11시부터 40분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3층 순천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순천체력인증센터의 전문가를 통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천체력인증센터는 주중 센터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추가 운영중이다.

신청방법은 모집기간 내 체력 측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장흥, 8개국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 500억원 달성한다"

3개국 3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74만 달러 계약 체결

장흥군은 농수산식품 수출 500억 원 달성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수출상품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희망업체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된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의 해외바이어 10명이 초청됐다.

해외바이어들은 수출 희망업체와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흥 지역 수출업체 생산 현장도 방문했다.

전남FTA통상진흥센터 상담부스에서는 전문 관세사들이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FTA 관세 및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불안한 수출 환경 속에서도 이번 행사로 미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국과는 총 74만 달러(한화 약 10억 7천만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흥군은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수출업체 가운데 해외 규격 미인증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도록 수출상담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강진, 한우 농가 긴급 사료비 지원 한다

1농가 최대 54만 원…3억 5700만원 투입

강진군이 최근 한우 산지 가격 하락과 가축시장 거래 중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사료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총 3억 5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1,002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입 인상분 차액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한우 1마리당 1만 8천 원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54만 원까지 지급됐다.

특히, 신속한 보조금 집행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진완도축협에서 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군이 직접 거래 자료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구비 절차없이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총 1,061농가가 약 3만 90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